인도네시아 수마뜨라섬 람뿡의 복음화를 위한 행진! | 2018년 03월 21일(제 27호)

이정규 & 원선영의 람뿡 사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행20:24)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네게 달렸나니". 선교에 대해서 조금 알아갈 즈음에 많이 불렀던 오래된 찬양인데 요즘 자주 불러 보게 됩니다. 보이는 것과 변하는 것을 따라 잡기 위해 발버둥 치는 시대에, 변하지 않는 진리를 따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땅에 누군가도 이런 복음을 듣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와 재정으로 섬겨 주시는 모든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 동역자 분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최근 소식과 기도제목을 나누어 봅니다.

RBF(Reading Bible Fellowship) 리더(제자)훈련 및 수련회 소식

RBF 소그룹들이 자생적으로 열리기도 하고 영적으로 성장 혹은 쇠퇴하거나 없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소그룹의 리더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사람의 변화라는 것을 깨달으며, 특히 사람(리더)을 키우는 것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2월 RBF 리더(제자)훈련을 매주일 오후2시부터 저녁까지 8주간하였습니다. 8명의 리더들이 구약개론을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면서 성경의 기본적인 뼈대들을 더욱 세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1박2일 수련회(구정기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나는 누구인가?)과 자신을 다시금 알아가고 리더들간의 팀웍을 다지는 즐거운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리더들이 2018년 한해 배우는 자에서 가르치는 자, 섬기자는 자로서 성장하기를 함께 기도해주십시오.

모세오경 세미나(4) - 민수기 세미나를 마치며

이슬람 중심의 인도네시아는 철저히 율법의 지배를 받으며, 정치사회문화가 움직이는 사회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전도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은 모세오경을 대해서 기존의 율법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예수님 중심적으로 모세오경을 가르쳐서 성경의 기본을 다져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토요일에는 민수기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40명의 성도들이 성경에 빼곡이 메모하면서 온종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군사들의 희망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부족한 언어지만 가르치는 일에 사용하심에 감사드립니다.

RBF(Reading Bible Fellowship) 캠퍼스 개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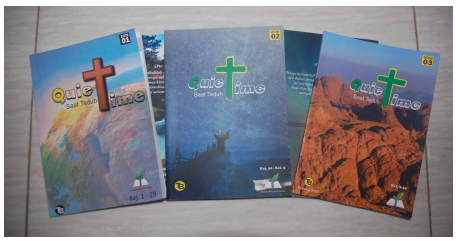
전 3월이 참 좋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생명력 있는 봄꽃이 피듯이, 이곳에서는 멀리 고향으로 돌아갔던 대학생들이 다시 캠퍼스로 돌아와서 대학가 주변에는 활기가 생깁니다. 어떤 분이 대학사역을 보내는 사역이라고 하셨는데,

말씀으로 교제하던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우리를 떠나고 새로운 친구들이 저희들과 연결됩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때에 맞는 적절한 학생들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니 만나와 같은 귀한 학생들입니다. 말씀에 너무도 갈급하였다고 고백하는 학생과 십년 전 온 가족이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후 마을과 친척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친구의 간증을 들으며,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세계관의 중심에 자리 잡도록 가르쳐야겠다고 다짐해봅니다.

람뿡 평신도 지도자 훈련센타 마련을 꿈꾸며

최근 기도하면서 훈련과 모임의 장소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이어지는 소그룹 만남을 저희 집에서 해오고 있고 또 세미나를 위해서 장소 대여하고 있는데 사역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될 훈련센타를 두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슬림들의 방해가 없는 지역에 적당한 장소가 마련되어 다양한 성경모임이 개최되고 저희들뿐만 아니라 현지 교회에도 큰 유익이 되는 장소가 세워지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세부적인 그림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분별하도록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성경 묵상집(QUIET TIME)을 발간하며



지난 연말 리더들과의 사역회의에서 자체적으로 묵상집을 발간해보자는 야심찬 도전이 벌써 3권의 QT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100여권의 QT집을 직접 발간하는 것이 이곳 시골에서는 쉽지 않고 흔치 않은 일입니다. 제작비용도 비싸며, 편집팀이 실제로 구성될지 걱정반, 기대반의 저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꾸짖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몇 명의 친구들과 편집팀을 구성하여 각자의 파트를 맡아서 4월호도 곧 출간예정입니다. 편집팀에게 지혜를 주셔서 더욱 알찬 내용으로 구성되어, 람뿡 지역에 말씀읽기와 묵상 운동이 정착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강의와 설교 사역

얼마전 지역의 한 교회에서 8주간 신약 강의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주일 밤 가르치고 있는데, 10명 내외의 성도들이 탁구대에서 공부를 하는 모습이 참 이채로왔습니다. 탁구대를 책상 삼아 옹기종기 모여서 함께 공부하는 모습에 저 또한 신나게 가르쳐 봅니다. 시골지역의 설교 요청은 저를 가장 신나게 하는 것인데, 2-3시간 비포장도로를 네비게이션에 의지하여 찾아가면, 어김없이 귀한 시골교회가 저를 반깁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 람뿡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가족 소식

지난 한주 중간고사를 마친 종학이가 일주일간의 방학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아들을 위해서 요리솜씨를 발휘하고 가정에 활기가 넘쳐서 기쁜 한주를 보냈습니다. 역시!! 집에는 애들 소리가 나야 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는 재수를 준비하면서 알바를 함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잘 순종하도록..저는 몇 개월 전부터 급성 목디스크의 증세가 와서 책상에 앉기가 어려울 정도의 통증이 자주 옵니다. 회복하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역자 된
이정규/원선영 올림

- 이슬람 복음화와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현지의 교회들이 부흥하도록
- 동역하는 RBF 회원들과 리더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성장하도록
- 성경 묵상집 발간, 17개의 소그룹이 말씀안에서 잘 세워지도록
- 평신도 지도자 훈련 센타를 마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도록
- 이ㅅㄱ사의 목 디스크 통증이 완화되도록,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딸 민주가 내년 대학 입학을 잘 준비하도록

▌후원계좌 ▌외환 022-04-00057-121(합신세계ㅅㄱ회 이정규)
▌후원 및 기도편지 관리 ▌남장수 집사 010-2510-7343 카톡 아이디 : dream1189
▌연락처 ▌070-4064-1189 또는 +62 8221 927 3562 ▌E-mail ▌dream1189@hanmail.net